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교통대상 시상식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회장 조경래·이하 광교협)는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광교협 사무실에서 교통가족 송년회 및 '2023광주교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여객·화물운송·자동차검사·정비·매매·렌트카 등 14개 교통단체에 종사하는 9만여 교통가족 중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3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최고의 영예인 '교통대상'은 기형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받았으며 나이나이수(구일택시)씨 외 11명이 광주시당 표창을, 최수양(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씨 외 10명이 광교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아동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지난 21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노블담 형제의 집(원장 이은희 수녀)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과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시체육회의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소식을 접한 광주시 궁도협회 관덕정

의 백영록 사투와 관덕정 회원들도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감으로 헌신하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용권 민주평통 사회복지위원장 의장표창 수여식서 대통령표창

김용권(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사친) 민주평통 광주시협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이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공적이 탁월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의식 고취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며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져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대 겸임교수,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명예회장, TBN 광주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부덕임 솔잎신타 대표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덕임(여·72·사진 왼쪽)솔잎신타 봉사단 대표가 올해 '광주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부 대표에게 헌액인증을 수여하고, 청사 1층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현판을 등재했다. 부 대표는 1994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원봉사단체인 솔잎신타를 조직하고, 30여년간 장애인 돌봄, 거동불편·치매 어르신 생활지원, 탈북 세터민 멘토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부 대표는 "봉사는 저의 스승이자, 세상에 태어났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봉사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었다"며 "더 고운 마음으로 더 좋은 일을 펼치라는 뜻으로 앞으로라도 어두운 곳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함께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2021년 시작했으며 첫째 해에는 4명(개인3·단체1), 지난해에는 1명(개인)이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와 상호협력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와 국제화 브랜드 협력과 국제 인재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공동운영프로그램, 세종학당, 교육·훈련 일체화, 기술·연구개발, 단기 트레이닝 등의 프로젝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인 광주대학교의 우



한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보티로프 바흐드르 부지사와 굴리스탄시 시장, 대외투자무역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장윤경 교수 광주시장 유공표창

호남대학교 장윤경(사진) 간호학과 교수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지속가능발전 한마당' 행사에서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장윤경 교수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화와 확산을 위한 활동을 기획·운영하며 지역사회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이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재)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아침밥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오늘부터 친해지구(재)	00 혼례대첩(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주니토니 이야기 45 다이노맨2(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글로벌 도내이션쇼 W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송아지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5 특집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우이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고려 거란 전쟁 스페셜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00 솔로동창회 헌연	20 김성진VS
11	30 영성앨범 신(재)	20 개그 콘서트 스페셜	30 100분토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35 홍길동전(재)	55 TV예술무대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끼 구조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물	18:4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피레네 낭만 가도(歌道) -내 맛대로 인생길》
08:20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5 한국기행
08:35 뽀뽀뽀 뽀로로	16:40 당동명 유치원(재)	《내게 와, 겨울 2부 겨울 강하 미식로드》
08:50 사샤 앤 마일로	17:00 페파 피그	21:55 EBS 다큐프라임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2:50 건축탐구 - 집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뽀뽀뽀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	17:25 미스터리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1월 14일 戊午) ☎ 010-9790-8237

<p>36년생 시류에 따라 변하는 인심이 크게 한숨을 쉬게 된다. 48년생 심층도에 비례해서 수확할 것이니 섬세함으로써 완성을 높여야 할 때이다. 60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게 싹트게 될 것이다. 72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84년생 따질 계제가 아니니 수용하고 보자. 96년생 의도적인 술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63</p>	<p>42년생 명분보다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54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66년생 구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78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극히 현명하다. 90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자라. 02년생 무탈할 것이니 노파심을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9, 87</p>
<p>37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49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6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제가 보인다. 73년생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97년생 긍정적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4</p>	<p>43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 두어야 뒤탈이 없으리라. 55년생 초심으로 대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다. 6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번수를 안고 있다. 79년생 가장 근원적인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91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03년생 잘 따져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5</p>
<p>38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50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62년생 과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74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86년생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와도 취할 수 없다. 98년생 기조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33, 65</p>	<p>44년생 주관에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56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68년생 매끄럽지 못하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80년생 언제 어느 때라 하더라도 새로운 일에는 끼여들지 않는 것이 좋다. 92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04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26, 66</p>
<p>39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51년생 실제 가능한 한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과 객관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63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75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87년생 서로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해 보자. 99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9, 70</p>	<p>45년생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절대 못 찾을 것이다. 57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69년생 단속만 절제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다. 81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93년생 일찌감치 긴장했다가 늦게나마 풀리는 양태이다. 05년생 뜨거운 화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9, 76</p>
<p>40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52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64년생 흔들리기 쉬우니 어느 길도 물어서 가지 않으려는 법이 된다. 76년생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아무렇게 다잡아야 할 시기이다. 00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 큰코다치리라. 행운의 숫자 : 23, 55</p>	<p>34년생 극한 상황에서 순화하는 성숙이니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겠다. 46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마라. 58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순조롭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0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82년생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94년생 형식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2, 72</p>
<p>41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53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65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마음을 폭 놓아라. 77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89년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01년생 어찌고 어찌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61</p>	<p>35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지 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47년생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할 것이다. 59년생 가치와 실익의 관점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걸림이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83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흉이 된다. 95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0, 58</p>